

일 어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地域アイドルは、その地域ではある程度名前が知られていても、ほとんどの場合は全国的には無名である。しかし、2013年度以降の地域のアイドルブームに乗り、特にインターネットやSNSで情報が発信され、地域アイドルの活動が全国に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地域での活動が、その地域でしか情報発信できない時代とは違い、個人がメディアとなりSNSなど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で情報発信できる時代になると、興味を持った個人のつながりが連鎖し、全国的に有名になる場合がある。この場合、日本国内はもちろん、海外各国からその活動が知られるようになる。そして、地域アイドルから国内の広い範囲で認知され、メジャーデビューにつながる、さらには世界で認知度が高まるようなケースもある。そのため、地域アイドルになることがその先の基盤になることも多くなった。また、以前、アイドルは特別な存在であったが、現在はより身近な存在となり、多くの若い女性にとって、アイドル活動がしやすくなったことも、地域アイドルが増える要因となっている。(10점)

- 2) 高い能力を持つ人工知能(AI)の登場に、教育現場が揺れている。人間の思考を代替させるような使い方は、極めて問題が大きい。ルールづくりを急がねばならない。米新興企業が開発した対話型AI「チャットGPT」は、文章中の単語同士の関係性などを学習させたことで、精度の高い文章を作り出すことが可能になった。昨年11月の公開以来、利用者は急速に増え、すでに世界で1億人を超えたとされる。これを使えばレポートも瞬時に作成できる。現段階では、生成した文章に著作権侵害やウソが交じったり、質問の内容から個人情報や機密情報が漏れたりするリスクがある。

だが、米スタンフォード大の学生新聞が実施した調査では、学生の17%が「試験や宿題にチャットGPTを使ったことがある」と回答したという。日本も同じような状況に違いない。「教育の危機」が叫ばれるのも当然だろう。学生のレポート作成について、東京大や上智大などは、AIの利用を制限したり、禁じたりする対策に乗り出した。入学式で学生に注意を促した大学もある。小中高校では2020年度以降、思考力や表現力の育成を重視した学習指導要領が始まっている。その一方で、AIを子どもたちが自由に使うようになれば、作文指導などは成り立たなくなる。

文部科学省は今後、教育現場向けのガイドライン(指針)を作成し、留意点などを示すという。教育の目的や意義にも関わる重大な問題である。実効性のある指針づくりを急いでもらいたい。学生らがAIに文章を書かせた場合、教員がそれを見抜くのは難しいとされる。インターネット上には、企業に提出する自己PRをAIに書かせた、といった書き込みも登場し始めている。大学の試験や企業の採用活動の際には、会場に学生を集め、手書きや口述を用いるなどの対策を検討する必要もありそうだ。(15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본다면 많은 참가자(국민)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치가 더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국가는 의료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도로, 수도, 전기, 가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수고 없이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소속되어 플랫폼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 수로만 보면 2000년 이후의 세계는 국가를 능가하는 플랫폼이 등장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매일 같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수로 보면 중국의 인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초국가적인 메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5점)

- 2) 일본 굴지의 보험회사인 다이이치(第一)생명은 매년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어른이 되면 갖고 싶은 직업’을 조사해 발표한다. 지난달 올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일본 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직업은 회사원이었다. 공무원도 인기가 있다. 중학생 그룹에서는 3위가, 고교생 그룹에서는 2위가 공무원이었다. 일본에서도 공무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도가 높다. 남학생 사이에서 유튜버나 게임 크리에이터가 10위 안에 든 것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1위가 회사원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 결과를 두고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왜 회사원이 좋은지를 물었다.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회사원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회사원이 ‘쉽게 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10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